

응답하라! 랜선 놀이 '공원'

중랑숲에는 새들이 한창이죠~

중랑캠핑숲
생태 3호

새들의 합창이 들려오는 중랑캠핑숲! 4월과 5월에는 새들이 짝을 찾기 위해 새들의 노랫소리가 한창이에요~
아름다운 노래를 뽐내는 새들의 이미지와 설명이 맞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고 이름을 빈칸에 넣어보세요!



멧비둘기



직박구리



박새



참새



까치

‘_____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’는 속담이 있어요.
높은 나무 위에 나뭇가지로 커다란 둥지를 지어요.

_____는 목에서 배까지 중앙에 검은 줄이 있어
마치 넥타이를 맨 것처럼 보여요.
흔히 보이는 새라고 해서 이름에 흔할 ‘박’자가 들어가요.

_____는 뺨은 갈색이고 무스를 발라 세운 듯한
짧은 회색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.
‘찌잇 찌잇 찌빠~’ 소리를 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.

‘_____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까?’라는 속담도 있어요.
땅 위에서 양쪽 다리를 모아 ‘콩콩’ 뛰어요.

_____는 산에서 사는 비둘기로 머리와 목은 회색이고
이름에는 ‘뫼(山)’에서 온 ‘멧’이 붙어요.



여기서 잠깐!

날개가 있으니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새~ 우리는 ‘새’를 왜 ‘새’라고 부를까요?
‘하늘과 땅 사이를 마음대로 오가는 이’라고 해서 ‘새’라는 명칭이 생겼네요!
사 + 이 = 새

사진제공 :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민숙



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

색칠놀이로 만나는 '박새'

'박새'는 서울시에서 보호하는 야생 생물 대상종이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해요.
작고 소중한 '박새'가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요!



만든이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태강사 안해숙

도움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민숙, 공원여가과 김윤희